

고전고대의 그리스 폴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폴리스

기원전 5~4세기의 그리스 세계를 고전기라고 명명하는 것은 관례로 굳어졌다. 이러한 관례의 바탕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다. 즉 고전고대의 그리스는 서양문명의 한 기둥으로서 인문주의적 정신이 정치·철학·문학·예술·건축 등 인간 활동의 전 분야를 망라하며 화려하게 펼쳐진 인류 역사상 특기할 만한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명력이 넘쳤던 시대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문헌들은 흩어졌고 미술품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으며, 건축물은 보기에 처참할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고전기에 살았던 그리스인의 모습과 그들의 삶과 정신을 어느 정도 되살려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전고대의 그리스와 현대 그리스의 관계이다. 사실 문화적으로 고전고대의 그리스와 현대 그리스의 거리는 가깝지만은 않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세로 접어들면 그리스는 이슬람교를 믿는 정복자들의 침입을 받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싫든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영향은 근현대에도 이어졌다.

그리스 세계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정된 도시들의 세계이며, 고전기의 영광과 변영도 대략 1,500개 정도로 추정되는 소규모 도시국가(polis)를 무대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문화적인 융성은 특히 아테네에서 두드러졌으나, 그리스 세계의 또 다른 축의 강대국인 스파르타의 문화는 아테

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설사 라케다이몬인들의 폴리스(스파르타)가 황폐해져서 훗날 신전도 그 주춧돌만 남게 된다면 후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의 명성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쓰고 있다. 현재 우리는 스파르타가 지녔던 국력과 명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전고대의 문화유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독특한 국가체제를 가졌던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격차는 꽤 컸다고 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의 입지 조건으로, 일조량이 많고 북풍을 막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정치·군사상의 활동이 편리한 곳, 깨끗한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곳, 미관을 갖춘 곳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폴리스는 주거지보다 중심이 되는 시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인데, 국가로서의 폴리스에는 그 외에도 전답이 있는 농촌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농촌에 토지를 가진 시민이 시내의 다양한 공공시설(민회를 여는 집회 장소, 법정 등)에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폴리스 사회이며, 그런 의미에서 도시 생활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은 시장을 이루어 사고파는 관습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아고라(광장) 같은 것이 페르시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고라에는 오전에 장이 서는데, 돈지갑 대신 입에 돈을 문 가장이 노예를 데리고 장에 가서 생선, 채소, 과일, 일용품 등을 사거나, 혹은 법정에 출석하고 폴리스의 게시판 주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

면을 볼 수 있다. 아고라 주위에는 도예공들의 직인이 살았으며,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종종 찾아가 철학 토론을 벌였던 구두수선공 시몬의 작업장 같은 것도 발굴되고 있다.

이에 반해 아크로폴리스는 수호신의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는 성역으로 그곳에는 대개 신들에 대한 호소문으로 시작되는 결의문이나 동맹규약 등이 석판에 새겨져, 수호신께 바치는 헌납품과 함께 빼곡히 서 있었다. 그 기슭에는 대개의 경우 언덕 사면을 이용해 세운 극장이 있다. 거기에서는 국가 축제의 일환으로 신화나 시사 문제에서 소재를 찾은 비극이나 희극의 경연대회가 벌어지곤 했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을 가진 폴리스였지만, 고대 그리스인은 도시의 영역이나 시설보다 시민들의 집합체 그 자체를 폴리스의 본질로 인식했다. 그 사회는 폴리스마다 과두정이거나 민주정으로, 비록 정치체제는 달라도 시민의 지배공동체가 노예나 거류 외국인 등 시민이 아닌 자들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민공동체 내부에도 빈부 격차는 뚜렷하게 존재해 내란으로 치달은 사례도 있었지만, 로마의 라티퐁디움 같은 대토지 소유는 발달하지 않았다.

이오니아의 반란

리디아 왕국의 중주권 아래에서 해상교역으로 번영했던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시는 기원전 6세기 전반, 차츰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그 지배는 대체로 관용적이었지만, 참주를 앞잡이 삼아 그리스 도시들을 통제하려던 페르시아의 대외 정책으로 인해 해상교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시민공동체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의 참주 대행자 아리스타고라스가 페르시아에 반란의 기치를 들었다. 그러자 반란은 각지로 확산되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요청에 응해, 에레트리아는 5척, 아테네는 20척의 함대를 반란 지원군으로 파견했다. 반란군은 사르디스를 잣터미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뒤이어 라데 곶의 해전에서 참패하고, 거점 밀레토스가 함락되어 결국 이듬해에 페르시아는 이오니아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패배하기는 했어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이오니아 도시들의 자유를 위한 열망과 투쟁은 페르시아에 참주 옹립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자치를 인정받는 등 소기의 성과도 얻었다.

마라톤 전투

트라키아 지방을 평정한 다리우스 1세는 이오니아 반란에 지원군을 파견한 데 대한 보복으로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에 정벌군을 보냈다. 에게 해상의 섬들을 차례로 제압한 이 정벌군은 우선 에레트리아를 함락한 후 아테네 시의 숨통이라고 할 외항 팔레론으로 직행하는 대신 아티카 동북부의 넓은 평원 마라톤에 상륙했다. 이에는 물길 안내자로 동행하여 아테네에서 정권 탈환의 집념을 다지던 히피아스의 계산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는 반세기 전 에레트리아를 거쳐 가문의 세력 기반이었던 마라톤에 상륙해 정권 탈환에 성공했던 부친 페이시스트라토스 때를 떠올리며 아테네 내부의 호응자들이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런 기대는 반란 초기 20척의 원군을 파견해 달라는 이오니아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했던 아테네의 정국 동향을 간파한 데서 나온 판단이었다.

그러나 아테네 민회는 항전을 결의하고, 스파르타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전령을 보내는 한편 훗날 마라톤의 용사들로 이상화된 중장보병 9천 명을 마라톤에 급파했다. 종교적 이유에서 출전을 지체한 스파르타군은 결국 참전하지 않았으나, 우방 플라타이아에서 병력 1천 명을 급히 보냈다. 페르시아군 병력은 약 2만 명이었다고 추정된다.

아테네의 10인 장군단은 선제공격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 전투 없이 여러 날이 지나갔다. 내통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한 장군 밀티아데스는 군사령관 칼리마코스를 설득해 마침내 전투에 돌입했다. 적의 전열에 맞서 오목렌즈 모양으로 중앙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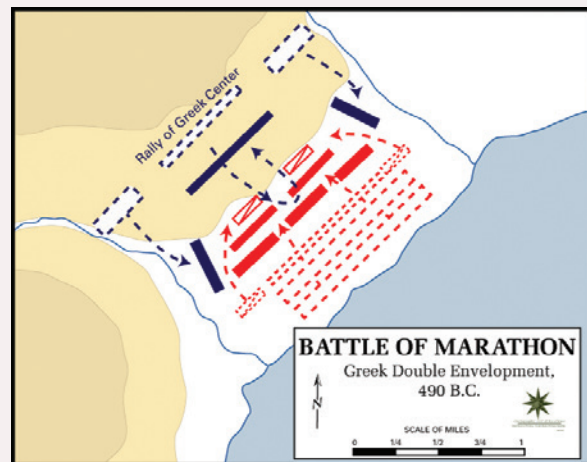


그림 1. 마라톤 전투 대형도 / 제작 : 미국육군대학, 출처 : 위키미디어

을 얹게 하고 양쪽 날개를 두텁게 해 전진한 아테네 측은 페르시아 궁병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서자 구보로 돌진했다. 중앙부는 돌파당해 쫓기게 되었지만, 곧 승리를 거둔 양쪽 날개가 중앙부로 돌아서면서 페르시아군이 밀리고 아테네군이 쫓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페르시아군은 밀고 밀리는 백병전에서 벗어나 배를 타고 아테네 앞바다로 접어들었다. 페르시아군은 미리 심어둔 아테네 시내에서의 호응 세력의 준비를 알리는 신호를 받아 수니온곶을 돌아 팔레론 항구로 향했다. 장시간 격전을 치른 후였음에도 변절자의 출현에 당황한 아테네군은 서둘러 시내로 돌아갔다. 그곳에 나타난 페르시아 함대는 이미 포진한 아테네군의 모습을 확인하자 상륙을 단념하고 에게해를 거쳐 철수했다.

테르모필레 전투

그 후 페르시아에서는 부왕의 유언을 받들어 크세르크세스가 몸소 해군과 지상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한편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483년에 라우레이온에서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었는데, 테미스토클레스는 민회를 설득하여 기존의 관례대로 나누어 갖기를 하는 대신 다수의 3단 노선을 건조하게 했다. 지상군 우선론을 펼치던 아리스테이데스는 도편추방으로 실각하고, 그렇게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기원전 481년 크세르크세스가 군대를 진군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린토스에 그리스의 각국 대표가 모여 스파르타

를 맹주로 하는 동맹을 결성했다. 이 동맹이 그리스 세계 전체를 규합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대 강국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협력 체제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이듬해 여름 테살리아를 남하하는 페르시아군을 맞아 싸우기 위해 육군은 오이다 산맥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지점에 형성된 자연스러운 협로 테르모필레로, 해군은 에우보이아 섬과 본토 사이의 해협으로 출동했다.

저지선을 더 남쪽으로 후퇴시킬 것을 주장하며 철수한 연합군을 무시하고 남아서 싸울 것을 결의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휘하의 300명의 정예부대는 현지 그리스인의 안내를 받아 산길로 우회해 후방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불사부대와 전방의 페르시아 본대에 협공을 당해 왕 이하 부대 전원이 옥쇄했다. 해상에서는 전투가 결판나지 않았다.

살라미스 해전

아르테미시온 해전에 앞서 테미스토클레스는 민회의 결의를 통해 전투력이 없는 아테네 주민들을 살라미스와 트로이젠으로 대피시킨 다음, 시민과 거류 외국인을 200척의 함대에 승선시키고 나머지 반의 함선을 아르테미시온으로 보냈다. 그 후 부득이 방어선을 후퇴시킨 그리스군은 살라미스에 집결해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페르시아 지상군은 아티카를 단숨에 점령하고, 펠로폰네소스에 모인 그리스인들은 이스모스 지협에 방벽을 쌓기 시작해 그곳을 바다와 육지 양면의 방위선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것을 본

그림 2. 테르모필레 협곡의 현재 모습 / 출처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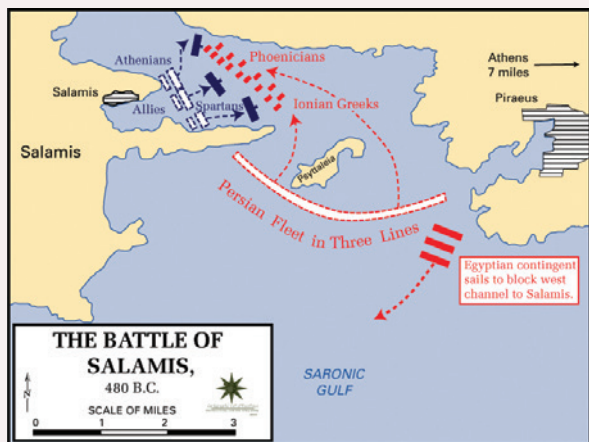


그림 3. 살라미스 해전 대형도 / 제작 : 미국육군대학, 출처 : 위키피디아

지략가 테미스토클레스는 하인을 페르시아 진영으로 보내 그리스 쪽의 내부분열과 아테네의 배반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페르시아가 공격을 서두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속속 좁은 수로 안으로 들어온 페르시아 함대는 아이갈레오스 산 위에 진을 치고 관전하는 크세르크세스의 눈앞에서 층각 전법에 의해 하나둘씩 격침되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어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간 뒤 그리스군은 다음 전투를 준비했지만, 전의를 상실한 페르시아 함대는 크세르크세스의 명령을 받아 두 진영으로 나누어 철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그리스군이 추격에 나섰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후 안드로스섬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사령관인 스파르타의 유리비아데스의 의견을 따라, 추격전을 중단하되 먼저 페르시아

에 가담한 에게해 섬들에 응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플라타이아 전투

크세르크세스는 해전 후 마르도니오스에게 정예병력을 맡기고 육로를 통해 사르디스로 돌아갔다. 기원전 479년 여름 마르도니오스는 테살리아에서 남하해 주민이 살라미스로 다시 대피한 아티카 지역을 병력 손실 없이 재점령한 뒤 아테네가 순순히 항복할 것을 기대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스모스에서의 방벽 건설이 착착 진행되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스파르타에 대해, 아테네는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불사한다고 위협을 가한 끝에 결국 스파르타도 고집을 꺾고 파우사니아스 휘하의 스파르타군을 북쪽으로 출격하게 했다. 마르도니오스는 아티카를 철저히 유린한 후 플라타이아에서 그리스 동맹군을 기다렸다.

진을 친 양군은 아소포스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계속하다가, 후퇴하는 그리스군을 페르시아군이 구보로 추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으나, 이어 벌어진 백병전에서 승패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페르시아군은 패퇴했으며 지휘관 마르도니오스도 그 와중에 전사했다. 같은 날 소아시아의 미갈레에서도 결전이 벌어져, 육지에 상륙한 그리스 해상병력이 승리를 거두었다.

민족적 자각과 자유의 찬가

페르시아 전쟁은 동방의 대제국의 팽창정책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걸고 싸운 폴리스 시민의 항전 기록이다. 분명 그리스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싸운 것은 아니고, 각자의 사정 때문에 일찍 페르시아의 지배 밑으로 들어간 폴리스들, 중립을 표방한 채 전황의 변화를 지켜보던 폴리스들, 결전을 앞두고 전군을 철수시킨 폴리스들 등 복잡한 양상이었지만, 끝까지 항전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민족적 자각과 함께 자유의 관념이 강해졌다.

아테네에 한해 말하자면 마라톤 전투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완성된 증장보병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의 눈부신 승리였고, 살라미스 해전은 노잡이로 활약한 무산시민층의 발언권을 높였다. 한편 전후 국제관계에서 해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깨우쳤다는 점에서도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



그림 4. 플라타이아 전투 상상도 / 19세기 신원 미상의 화가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